

“IP 확보로 콘텐츠 중무장… 2025년까지 미디어 매출 5조”

KT그룹 미디어 데이

KT스튜디오지니·ENA 등
전년비 9%가량 괄목성장

KT그룹은 오는 2025년 콘텐츠를 포함한 미디어 매출로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KT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에서 개최한 ‘KT그룹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K-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 미디어 이용환경을 고급화하겠다는 포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KT그룹 콘텐츠 분야(KT스튜디오지니, ENA, 지니뮤직, 밀리의서재, 스토리위즈) 매출은 약 5000억원을 달성했다.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2022년 KT그룹 전체 미디어매출은 전년보다 9%가량 성장한 4.2조원으로 2025년까지 매출 5조원을 바라본다.



18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열린 2023 KT 그룹 미디어데이에서 KT스튜디오지니 김철연(왼쪽부터) 대표, KT Customer부문장 강국현 사장, ENA 윤용필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 국장은 “목표로 한 2025년까지 5조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츠 장르 확장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모전 등을 통해 자체 지식재산권(IP)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니뮤직, 스토리위즈 등 미디어

콘텐츠 회사를 거느린 KT스튜디오지니는 설립 2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KT스튜디오지니의 영업이익은 약 58억원을 기록했다.

김철연 KT스튜디오지니 대표는 “설립 2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것은 당시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그대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KT그룹의 미디어 밸류 체

인이 제대로 작동된 근거”라며 “저희 생각보다 해외 판매 매출이 늘어나면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국 1주년을 맞은 ENA는 스카이TV와 미디어지니 합병 이후 리브랜딩 작업을 거치며 채널 순위가 24위에서 11위로 꺾중 뛰어올랐다. 매출도 67% 성장해 약 1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윤용필 ENA 대표는 “지난해 24위에서 탑 1위 채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청률이 상승할 뿐 아니라 광고 매출까지 동반 상승세로 이어졌다”며 “글로벌 지식재산(IP) 사업자로 발돋움하고, 1조원 가치를 가진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KT스튜디오지니가 제작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및 ENA 채널의 역대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ENA는 성과를 이어가지 위한 3가지

성장전략 방향을 밝혔다. 우선 시청자 기반의 ‘이상한 즐거움’을 채널 아이덴티티로 삼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 톱 크리에이터들과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늘려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ENA는 또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장르의 콘텐츠를 글로벌로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IP 사업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국장은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개발된 셋톱박스인 ‘지니TV 올인원 셋톱박스’를 공개했다.

강 국장은 “이 셋톱박스에는 삼성전자의 ‘HVR10 플러스’와 ‘돌비비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각각의 TV에서 최상의 화질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삼성 SDS, ‘첼로스퀘어’ 물류 디지털화 선도

(IT 물류 플랫폼)

국제 운송·물류 서비스 윈스톱 진행
데이터 분석·자동화 등 새 기능 추가

“첼로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 첼로스퀘어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라는 광장에서 첼로 역할을 맡겠다”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의 말이다.

삼성 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첼로스퀘어는 이용자들이 예약, 운송, 트래킹, 정산, 탄소 배출량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첼로스퀘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삼성SDS는 18일 잠실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객이 견적부터 예약, 운송, 트래킹, 정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첼로스퀘어 플랫폼에 ▲데이터분석 ▲자동화 ▲탄소 배출량 추적 등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다.

첼로스퀘어는 특송 서비스를 비롯해 해상, 항공 등 모든 국제 운송업무와 물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이 18일 서울 잠실 삼성SDS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첼로스퀘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류 관련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IT 물류 플랫폼’이다. 국가의 판매규정, 인증,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등 물류에 관한 전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운송 중인 화물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단위까지 세분화된 운송 정보를 제공해 미래 재고량 예측에 도움을 준다

삼성SDS는 이날 고객이 견적부터

예약, 운송, 트래킹, 정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첼로스퀘어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 ▲자동화 ▲탄소 배출량 추적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셀프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물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후 물류 과정에서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레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레포트는 운송중인 화물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운송정보, 도착항구, 예측일정, 컨테이너 보관일수, 지연현황 등 운송에 관련된 전반을 실시간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은 “첼로스퀘어를 통한 사업 전환이 물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술들이 디지털 4.0 단계로 넘어가면서 저변이 많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SDS의 IT 기술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운송 정보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고객향의 사업으로의 전환이 목표”라고 전했다.

/사진·글=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중, LNG선·컨테이너선 신제품 발표

그리스서 ‘삼성 기술 로드쇼’ 개최

삼성중공업이 주요 선박 발주처인 유럽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신제품을 공식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17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삼성 기술 로드쇼’를 개최해 선박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미네르바, 가스로그, 쉘 등 주요 선사주사를 비롯해 35개의 선박 관련 회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공개된 ‘3 카고 탱크’(3 Cargo Tank) LNG선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상 4개의 화물창(저장탱크)을 3개로 줄여 설계한 제품이다. LNG가 화물창에 닿는 면적을 줄여 기화율이 5% 이상 개선됐으며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이 감소해 유지보수 비용도 줄인 것이 특징

이다.

삼성중공업은 멤브레인 화물창의 원천 기술사인 프랑스 GTT와 이 설계방식을 공동 개발해 영국 선급인 로이드로부터 기본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개된 ‘에코’(eco) 컨테이너선은 운항부와 거주구를 분리해 추가 적재 공간을 확보한 신개념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를 최대 8% 더 실을 수 있으며, 향후 메탄올과 암모니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은 “기술 로드쇼는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디자인, 혁신 기술에 대한 마케팅 수단이며 고객사와 접점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주목도가 높고 호응이 좋아 향후 수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도서·산간지역 공동망에 SDB 적용

(슈퍼 듀얼 밴드)

5G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장점 결합

SK텔레콤은 5G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통신에 주파수 결합 기술 슈퍼 듀얼 밴드(SDB)를 도입, 이를 도서지역 공동망에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란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해 두 지점 간(기지국-기지국, 기지국-중계기 등)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은 주로 도서·산간 등 광케이블 매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선망을 대체하는 역할로 활용되며, 자연재해 등으로 광케이블이 유실된 상황 시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된다.

SDB 기술로 결합한 주파수는 기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에 사용되던 11GHz와 신규 도입된 80GHz 주파수다.

기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용 주파수



SKT 직원들이 도서 지역에 설치된 5G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SKT

인 11GHz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나 5G에 맞는 대용량화가 어려웠고, 새롭게 도입된 80GHz는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나 장거리 통신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SKT는 각 주파수의 장점만을 모아 대용량의 데이터 장거리 전송(10km 이내)을 가능하도록 했다.

/채윤정 기자

한화시스템, ‘우주의 눈’ SAR 군집위성 개발 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679억 규모 계약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679억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 SAR(고성능 영상레이더) 검증 위성 1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은 SAR 검증 위성을 개발하고 입증한 후 양산을 통해 SAR 군집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실제 ‘우주궤도 시험’을 실시해 한반도 전역과 주변 해역의 준실시간 감시·관측을 위한 소형·경량·고성능 SAR 군집위성을 개발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SAR 군집위성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 위기징후와 재난위험을 빈틈없이 탐지하는 ‘우주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각 위성 구성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공학모델(EM) ▲각 위성 구성품의 발사환경 및 우주환경 인증을 위한 비행모델(QM) ▲각 구성품 간 연동

시 기능 검증을 위한 전기적 시험장치(ETB) ▲위성체 구조물 내에서 각 구성품 기능 검증을 위한 열구조 모델(STM) ▲실제 우주로 발사할 초소형 SAR 위성의 발사용 모델(FM)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EO)·적외선(IR) 및 SAR 탑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현재 군사용 정찰위성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SAR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개발하며 독자적인 우주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